



종합기계제작업체 중앙공업사

제과기계의 신기술을 선도한다

매일 아침 여덟시 삼십분이면 전직원이 한 자리에 모인다. 중앙공업사의 조회시간이다. 앞자리에 선 유동식 사장의 간단한 아침인사와 전달사항이 끝나면 다소 장황하기까지한 사훈이 낭독된다.

'하나, 납기일은 중앙의 신용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자! 하나, 최상의 제품만을 고집하는 중앙가족이 되자! 하나, A/S가 필요없는 완벽제품에 최선을 다하자! 하나, ...'

그리고 구호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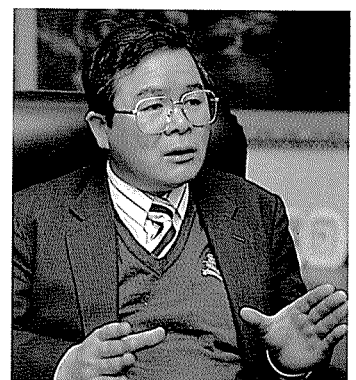
'정신통일! 안전제일! 납기일은 중앙의 신용이다!'

중앙공업사의 직원들은 작업에 관한 불필요한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는다. 자율적이지 못한 작업장 분위기는 사원들이 시간에 쫓기게 하고 오히려 주인의식을 상실케 해 작업의 집중력과 창의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결국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낼 수가 없게 된다. 매일처럼 조회를 갖는 것은 한가족이라는 일심동체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고 구호를 외침으로써 자신감과 책임감이 고양된다.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고객을 우선으로, 그리고 회사와 자신의 발

전을 위해 일심단결하는 정신이 바로 중앙공업사의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꼼꼼하고 성의있게 만들어진 제품, 그리고 신용이 바탕이 된 제품이 오늘의 중앙공업사를 있게 하는 것이다.

납기일은 중앙의 신용이다

종합기계제작업체 중앙공업사는 1980년 문을 열었다. 유동식 사장이 당시 원효로에서 중고기계센터를 시작한 것이 시초가 된다. 그로부터 15년째.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가능한 만큼만 사업을 확장해 왔다. 중고센터 운영으로 기계에 대해 자신이 생겼을 때, 몇 개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쇼케이스, 오븐, 냉동기 등의 제품과 전기도장 분야를 망라하는 생산체계가 순차적으로 하나씩 갖춰지고 자리를 잡아 갔다. 그리하여 이제는 제과관련 전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을 갖게 된 것이다. 쇼케이스제작부와 그에 따른 냉동부, 오븐제작부와 전기전자부, 믹서, 기계제작부와 도장부, 그리고 개발부 등 7개부서에 40여명의 기술진이 어우러져 종합기계제작의 위상



유동식 사장

중앙공업사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신용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업체이다.
제품의 질을 저하시키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중앙공업사의
올해 최고의 개발목표는
쇼케이스의 선진화이다

을 높이고 있다. 특히 국내 제과관련 기계업 체에서는 유일하게 도장부(塗裝部)를 두게 됨으로써 이제 외산 기계들과 대적할 준비까지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중앙공업사가 오늘 모습 갖추기까지는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

한때 무리한 사업확장의 여파도 있었으나 관리책임자의 불찰로 부도사태를 맞아 회사를 재정비해야 했던 일도 있었고, 고급제품을 지향한다는 방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싼 제품을 원하는 고객에게 발을 돌리게 하다보면 여러모로 가슴아팠다는 후일담이 있다.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품의 질을 저하시키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다고 유사장은 단호하게 되풀이 한다. '진실은 천하무적이다' 언젠가는 중앙공업사의 의지가 제대로 인식되리라는 유사장의 모토가 이제는 성공에 이른 것이다.

설립 15년, 우수한 제품생산에 총력 경주

중앙공업사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업계의 신용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업체이다. 이익금이 줄더라도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좋은 재료를 쓰고 꾸준한 연구로 고급화를 지향해 왔다. 아직 수입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국내기계제작업체의 현실에서 이 고급화란 연구개발을 통해 우수한 성능을 획득하는 것과 닮아날 것이다. 이런 노력의 결과 중앙공업사의 개발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90년대에 들어와서는 3~4개월마다 한번씩 신형을 제시했고 그것이 업계에 유행을 일으키기도 했다. 현재 국내의 쇼케이스 모델중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대리석형 흑경 쇼케이스'를 중앙공업이 먼저 선보였다는 것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중앙공업사는 올해 '94년을 도약의 해로 설정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공장을 확장 이전하고 전회사 차원에서 변화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1, 2층을 합쳐 4백평 가까운 신공장에는 전시장과 사무실, 세미나실이 고루 갖춰져 있다. 효율적인 제품관리를 위해 각부분별로 CCTV를 장치해 공정에 안전을 기하고, 기술분업화를 위해 반자동생산라인도 곧 도입할 계획이다.

신공장에서는 완벽한 설계도면을 위해 컴퓨터시스템 또한 마련하게 되므로 개발부의 역할이 자못 기대되고 있다.



2층에 마련된 사무실

올해 최고의 개발목표는 쇼케이스 선진화, 스티로폴 보온제를 우레탄으로 바꿔

줘 보겠다는 뜻이 언제나 전제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중인 기계들이 한시 바빠 국산제품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사장은 중앙공업사의 경쟁상대를 언제나 세계 일류기업으로 두고 있다. 스템 오븐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국내에서 그것이 대중화된 것이 불과 5-6년 정도였으므로 앞으로 몇 년만 노력한다면 모든 기계의 국제경쟁력 획득이라는 과제는 어렵지 않다고 말한다.

제과업계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특히 중소기업이라는 위치에서 굳건히 일어나고 있는 중앙공업사는 제과업계의 일부이기도 하다. 중앙공업사의 새로운 기계는 곧 새로운 베이커리의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객이 곧 동지이며 협력자가 된다. 그러므로 기계공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계의 운용에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중앙공업사가 짊어지고자 하는 또 하나의 과제가 있다.

중앙공업사는 현재의 공장에 마련된 세미나실을 활용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해왔다. 현재의 세미나 계획은 연중 12회, 연2회는 외국인 강사를 초빙해 무료세미나를 개최할 방침이다. 국제적인 기계업체로 성장하는 것과 제과업계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 이 모두가 중앙공업사의 본분인 것이다. 언제나 성실하고 진실된 자세로 직분에 임해왔다는 유동식장과 중앙공업사의 직원들. 유사장은 우리의 2세들에게 국제적인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물려주는 것이 자신의 임무임을 진지하게 숙고하고 있다. [21]



유럽형 전면 쇼케이스



수직형 믹서기

보온기능을 완벽하게 함으로써 소형모터를 장착할 수 있는 최신형 쇼케이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신공장 신설비를 발판으로 국제경쟁력을 추구한다

중앙공업사의 제품개발에 대한 열의는 단지 중앙공업사 자체의 발전에만 한정지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선두에 서서 제품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업계 전체의 발전을 이